연등회 앞서 버스정류소 이동행사 열린다

서울시, 오는 3월까지 보행전용 거리행사 마련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6년 진행된 연등회 제등행렬 당시 모습. 현재 중앙차선에 버스정류장이 들어선 상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지난해 말 개통된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인해 불교계 전통문화축제인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앞서 버스정류소를 분리·이동하는 연등회 사전점검 성격의 축제를 마련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3월까지 새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2.8㎞) 일부구간 내에서 보행전용 거리행사를 열고, 버스정류소 이동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 축제인 연등회에 앞서 버스정류소 이동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현재 설치된 정류소는 모듈형태로 설계돼 분리와 조립, 이동이 가능해 행사시 지게차로 정류소를 도로변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마련하는 거리행사의 피드백이 오는 5월 열리는 연등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게차로 정류소 이동
연등회 사전정보 기대
소요예산·도로통제 등
연등회 협의는 진행 중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연등행렬에 차질이 없도록 정류소를 옮겨 그 위에 관객석을 설치하거나 전광판을 활용한 행사정보 안내 등을 구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류소 이동은 최초 설계단계부터 계획한 것이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연등회는 8차로 중 6차로를 연등행렬로 이용하고, 바깥 차선을 관객석으로 배정했다"면서 "올해부터는 관객석 사이에 정류소가 들어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의자를 놓거나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연등회 백미인 연등행렬 구간서 10여개의 정류소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를 위한 예산을 5000만원~1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연등회서 정류소를 분리·이동하고 재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이 수립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중앙차선분리대 등 관련시설 철거와 재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에 추가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연등회 보존위원회 확인결과 서울시 지원 예산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게다가 서울시는 버스정류소 외에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도 설치할 계획이어서 소요예산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도로통제 역시 서울시와 연등회 보존위, 정류소 설계업체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보존위와 설계업체는 안전을 위해 최대한 시간을 들여 도로를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편의시설 유지를 위해 긴 시간 도로통제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류소 이동으로 인해 도로통제 시간이 2~3시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 이후는 늦은 밤이어서 부담이 없지만 통제 시작 시간은 협의가 필요하다.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연등회 보존위는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지속적인 3자 협의를 거쳐 연등회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보존위 측은 "공사가 전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서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예산보다는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이나 안전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편의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유관단체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간화선' 도 불교대학서 배워요"

공생선원 간화선 불교대학 개원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공생선원(선원장 무각)은 간화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2년 과정의 선(禪)불교대학을 개강한다.

일반 사찰의 불교대학이 불교 사상을 중심으로 한다면, '선불교대학'은 간화선을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체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입문과정은 1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공생선원장 무각 스님, 남양주 성관사 성진 스님, 불광사 선감 석두 스님, 불교인재원 이사 박희승 교수가 강의한다. 심화과정은 선어록을 중심으로 실참 참구하는 과정으로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조사 스님의 안목을 나의 안목으로 체험하고, 간화선 수행의 핵심인 화두를 증명법사로부터 직접 결택하고 자신의 수행 기틀을 세우는 과정이다. 〈보조수심결〉 〈보조신심직설〉 〈달마혈맥론〉 〈한암일발록〉 등 조사어록을 교과목으로 진행한다.

공생선원장 무각 스님은 "현대인들이 본래 참 모습을 찾아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02)900-2448

노덕현 기자

"지역주민 누구나에 열린 힐링공간 되길"

설정 스님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격려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을 격려 방문했다. 사진제공=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국내 최대의 복지관 운영이라는 부담감을 안고, 짧은 시간에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위안 받을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힘 써 주십시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1월 27일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영규)을 격려 방문했다.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고양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국내 최대 규모 복지관이다. 이번 방문에는 설정 스님뿐만 아니라, 최성 고양시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묘장 스님,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 종회의원 성화 스님이 동행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최성 고양시장과 함께 복지관 시설을 둘러보며 고양시 지역의 취약계층, 장애인 등 관련 다양한 복지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으며, 복지 증진을 위한 불교계와 지자체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20주년 인드라망, 세상과 연결한다

1월 27일 정기총회서 새 20년 여는 방향성 밝혀

인드라망 20년 백서 발간
11월 10~11일 20년 한마당
회원 배가운동도 적극 전개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인드라망생명공동체.

귀농운동을 중심으로 농도교류, 마을공동체 운동을 펼쳐온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세상과의 연결을 앞으로의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이하 인드라망)는 1월 27일 서울 인드라망교육도량에서 인드라망 회원들과 함께 창립 20주년이 되는 인드라망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과 전망을 모색하는 정기총회를 열었다. 지난 20년간 귀농운동을 중심에 뒀던 인드라망의 올해 방향성은 '세상과 연결하기'이다. 사회적, 문명사적으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생명이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의미다.

인드라망 총회는 전부 대화마당으로 진행됐다. 구성원 모두가 대화하고 어울리는 대동한마당의 장으로서 그 의미를 살리겠다는 의도였다. 인드라망이 20주년을 맞기까지 잘한 활동으로는 '마을공동체 운동'과 '실상사작은학교'가 선정됐다. 지난 20년을 깊이 있게 평가해 유명유실한 일과 활동을 만들어 나가자는 기대도 있었다. 또한 인드라망 대중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2018년을 제1 실현지 '실상사 방문의 해'로 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드라망은 〈인드라망 20년 백서〉를 출간하고 11월 10~11일 근본도량 실상사에서 '20주년 한마당'을 진행할 계획이다. 회원 배가 운동 '만 개의 구슬 연결하기' 작업도 단계적으로 펼쳐나간다.

인드라망은 "마을공동체 운동이 집중화, 거대화의 흐름을 막는 방안임을 다시 인식한다. '핵 없는 한반도 만들기' 사업과 '천 개의 마을 잇기' 원탁회의의 연대체로서, 우리의 참모습을 알고 참사람의 숲을 이룰 때까지 생명평화와 마을공동체를 가꾸는 활동을 힘차게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진형 기자

65세부터 새 소득을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노인활동지원사업 모집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 어르신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소득 창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2018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분야별 모집인원은 수영장 안전지킴이 40명, 복지관 안전지킴이 20명, 교통 안전지킴이 30명, 지하철 안내도우미 30명, 지역아동 서포터즈 30명으로 총 150명이다.

참가자는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내·외부 및 주변, 분당구 내 지하철 역사, 성남시 내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게 된다. 사업은 3월 2일에 시작하여 11월 30일까지 9개월간 활동하며 근무시간은 일 3시간, 월 30시간 근무시 27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로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정부 및 기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는 신청제외 대상이다. (031)620-2865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첫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초 6년 ~ 고 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